

소규모 직업계고의 학점제 운영 현황 및 지원 요구

2022년 특성화고에 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소규모 학교에서 학점제 운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규모 직업계고의 학점제 운영 현황 및 요구 분석을 통해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소규모 직업계고는 일원화된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으로 교사의 수업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음.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교사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조정, 정규 수업 시간 외 개설 및 운영 시간 확보, 수업 운영이 가능한 지역사회 기관 발굴 및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직업계고에서는 교원 전공 지도 역량 강화, 교외 교·강사 수급 및 운영,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이동 수단 및 관련 행정 등에 관한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이는 소규모 학교의 교원 수급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정책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소규모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점제 운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2022년 특성화고에 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소규모 학교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학교를 위한 지원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 교원의 업무 증가로 인한 전문화 축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히 필요함
- 그러나, 소규모 직업계고의 학점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은 부재한 상황임. 이 글에서는 현재 소규모 직업계고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여 소규모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규모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현황 및 요구 조사 (2023)」

- 분석 대상: 소규모 직업계고(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¹⁾ 144개교의 학점제 운영 관련 교사 378명(운영 담당자 144명, 교육과정·전문교과 234명)
- 분석 내용: 학교 교원 운영, 학점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분석은 학점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학점제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1) 학교 규모 관련 문헌 검토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소규모학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단일학과 여부, 학년당 학급 수, 직업반 학생 수로 도출됨. 이에 따라 소규모 직업계고는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교 중 직업계열반 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3. 4. 1일자 교육통계연보 기준 소규모 직업계 전체 학교 수를 산출한 결과 소규모 직업계고 모집단은 총 144개교임

※ 이 글은 '박미희 외(2023), 「2023년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사업 4. 소규모 학교의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지원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췌, 재정리한 일부 내용에 별도의 분석을 추가하여 작성함

02 소규모 직업계고의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현황

소규모 직업계고 교원은 다과목 지도로 수업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지역의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교외 강사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순회교사 활용률이 높은 편임

- 소규모 직업계고의 수업 담당 교원은 직업계고 평균보다 전문교과는 주당 수업 시수를 18분 더 많게, 보통교과는 50분 더 적게 담당하며, 교원 1인당 평균 담당 과목 수는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각각 3과목 정도 더 많이 담당하고 있음
- 144개 소규모 직업계고의 순회교사 활용률은 보통교과 41.7%(2.28명), 전문교과 8.3%(2.08명)로 직업계고 전체 평균보다 약 2배 많고, 산학겸임교사 활용 비율은 34%(2.61명), 시간 강사는 33.3%(1.81명)로 직업계고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음

표 1 | 수업 담당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와 담당 과목 수, 교외 교·강사 인력 활용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1인당 주당 평균 수업시수		1인당 평균 담당 과목 수		순회교사				산학겸임교사		시간강사	
	보통교과 (개)	전문교과 (개)	보통교과 (개)	전문교과 (개)	보통교과		전문교과		활용 여부 (%)	평균 인원 (명)	활용 여부 (%)	평균 인원 (명)
					활용 여부 (%)	평균 인원 (명)	활용 여부 (%)	평균 인원 (명)				
직업계고 전체	14.43	15.45	1.47	2.38	18.2	2.33	4.1	1.33	47.6	3.11	43.7	2.39
소규모 직업계고	13.51	16.03	4.09	5.09	41.7	2.28	8.3	2.08	34.0	2.61	33.3	1.81

주: 1) 2023학년 2학기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값으로 직업계고 전체 결과값과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직업계고 전체 자료는 '최동선 외(2022).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p.104'에서 인용

- 교외 교·강사 인력 활용 시 어려움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강사 인력풀이 적음'과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교·강사 활용이 어려움'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 | 교외 교·강사 인력 활용의 어려움

(단위: %)

인근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교·강사 인력 풀 적음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교·강사 활용 어려움	강사로 문제로 교·강사 활용 어려움	교·강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수업시수가 적어 교·강사 구하기 어려움	기타	학교에 필요한 과목의 순회교사가 운영되지 않음	채용 절차로 인한 어려움
43.1	43.1	5.6	4.2	2.1	1.4	0.7

03 소규모 직업계고의 학점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지만 학생 수 부족 및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선택과목을 조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임

-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91%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선택과목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는 연간 '1회(32.6%)', '2회(41.0%)'를 실시하는 학교가 많음
- 선택과목 조사 후 85.4% 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을 조정하여 과목을 편성하고 있으며, 조정하는 주된 이유는 '수강 희망 학생 수가 과목 개설 최소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56.9%)'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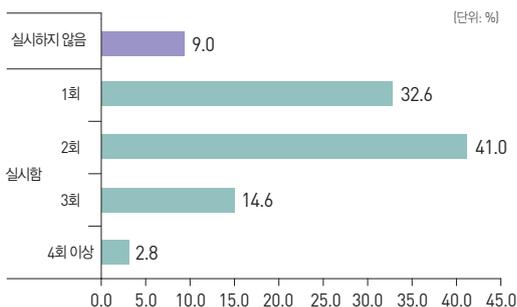


그림 2 | 연간 선택과목 수요조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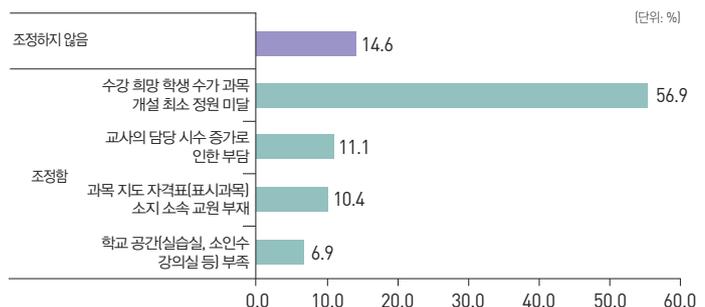


그림 3 | 과목 선택 후 조정 여부 및 이유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은 ‘교원 수급 상황에 맞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73.6%)’, ‘교·강사 채용 및 활용의 어려움(35.4%)’, ‘학교 공간(실습실 등)의 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 | 학생 과목 선택권 확보 저해 요인(중복응답)

(단위: %)

교원 수급 상황에 맞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강사 채용 및 활용의 어려움	학교 공간 (실습실 등)의 부족	교사의 수업시수 증가에 대한 불만	학점제에 대한 학생의 인지 부족	활용 가능한 지역 기관(학교, 산업체, 대학) 부족	교과서 주문 신청기한 (9~10월)에 따른 과목 선택권 선정 기간 확보 어려움	교통 및 이동수단 문제	기타
73.6	35.4	22.2	18.8	16.0	12.5	9.7	6.3	5.6

소규모 직업계고의 학점제 교육과정 모형별 운영률은 학교 내 교육과정이 가장 높음

- 소규모 직업계고의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은 학교 내 교육과정이 81.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학과 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59.7%)가 많고, 모형별 운영률은 직업계고 전체 운영률과 비교하여 대체로 낮음
- 소규모 직업계고의 경우 학과 수, 학급 수, 학생 수,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인근 지역의 학교 간 교육과정, 학교 밖 블렌디드 학습형을 다소 더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모형 운영 현황

(단위: 개교, %)

구분	학교 수	학교 내 교육과정		학과 간 교육과정		학교 간 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세부전공 코스형	후학습 지원형	타학과 융합형	부전공 이수형	1:1 매칭형	연합 캠퍼스형	연계형	블렌디드 학습형
직업계고 전체	573	89.2	14.1	68.9	17.5	3.7	27.1	9.8	0.9
소규모 직업계고	144	73.6	7.6	50.7	9.0	4.2	15.3	4.9	1.4

주: 1) 학점제 운영 모형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 모형에 중복 응답한 결과임

2) 직업계고 전체 자료는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2024. 1.). 2024년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계획. p.2’에서 인용

소규모 직업계고는 교사 수업 시수 증가에 따른 조정, 정규 수업 시간 외 개설 및 운영 시간 확보, 수업 운영이 가능한 지역사회 기관 발굴 및 확보 등의 문제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학과 간 교육과정 운영 시 어려운 점은 ‘교사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조정(63.2%)’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과목 개설 정원 인원 수 확보(40.8%)’, ‘선수학습 수준 차이로 인한 수업 운영(35.5%)’ 순으로 나타남
-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시 주된 어려움은 ‘정규(일과) 수업시간 외 공동교육과정 개설 또는 운영시간 확보(51.9%)’와 ‘학생 이동 시 관리 및 안전 문제(37.0%)’임
- 학교 밖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수업 운영이 가능한 지역사회 기관 발굴 및 확보(75.0%)’가 가장 어려우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교통 및 이동 문제(50.0%)’로 나타남

04 소규모 직업계고의 학점제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

소규모 직업계고에서는 교원 전공 지도 역량 강화, 교외 교·강사 수급 및 운영,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이동 수단 및 관련 행정 등에 관한 지원 요구가 높음

- 다양한 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수업시수 감소(45.8%)’, ‘다양한 과목의 부전공 연수 개설 및 강화(35.7%)’, ‘다교과 지도능력 함양 위한 현장 기술 연수(27.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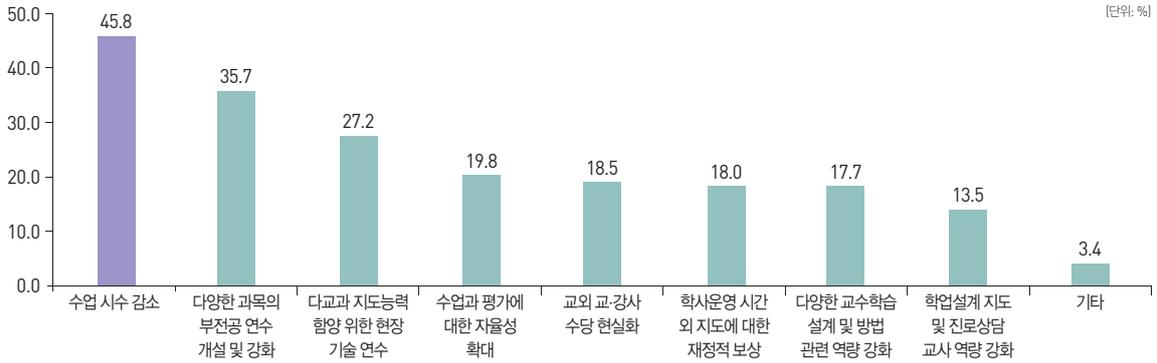


그림 3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 소규모 직업계고의 학점제 운영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는 ‘교외 강사 수급 지원’, ‘학생 이동 및 안전을 위한 차량 등 편의 지원(통학버스 외)’, ‘학교 특성 고려한 행정지원’, ‘학교 규모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모델 제시’, ‘순회교사 활용 및 운영 지원’, ‘지역 자원 발굴 지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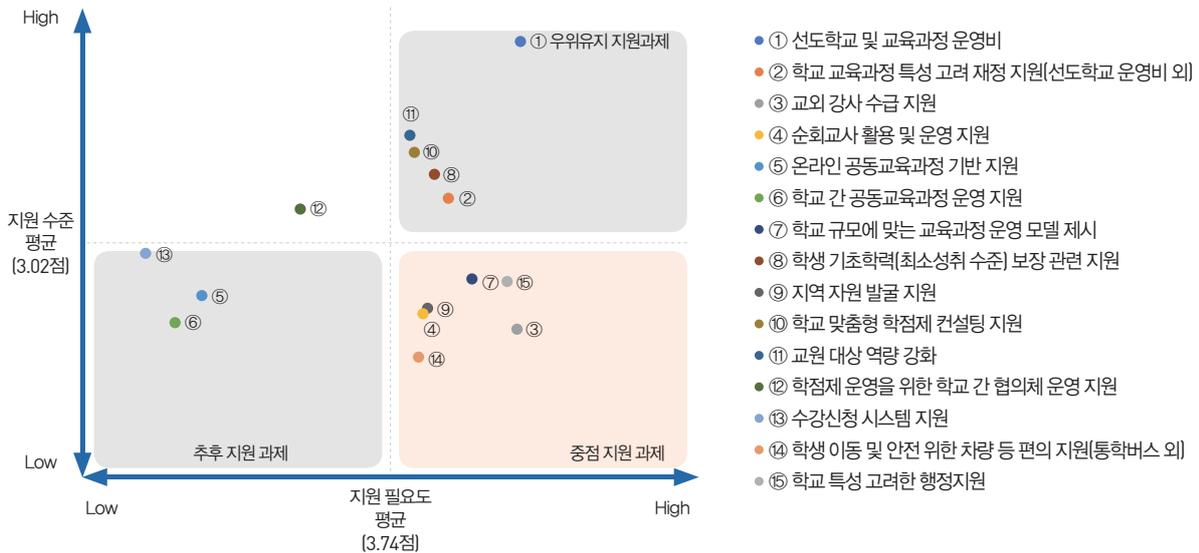


그림 4 | 소규모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 수준-필요도 비교 분석

05 시사점

- 소규모 직업계고 교원은 일원화된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에 따른 교원 수로 인해 수업 및 다과목 지도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지역 여건 상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 순회교사 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소규모 직업계고에서는 다교과 및 다과목 지도를 위한 교원 역량 신장과 교육과정 운영 시 수반되는 행정 지원 관련 요구가 높음
-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교원 수급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를 위해서는 교외 교·강사 인프라 발굴 및 운영 지원과 함께 다과목 지도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기회 우선 제공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원 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소규모 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